

벤처인의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영화 '말아톤'에서 배우는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요즘 한국영화 '말아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봄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의 1천만 명 관객 동원의 기록 이후 처음으로 5백만 명 관객 돌파의 기록을 깨고 있는 영화가 바로 '말아톤'이다. 영화 '말아톤'은 5살 지능의 20살 자폐아 청년의 마라톤 완주기이다. 부서지는 햇살,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그 아래 행복한 표정으로 달려나가는 20살 청년의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자신의 의지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다. 조금 오버하면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벤처인들의 미소도 저와 다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장애인의 휴머니즘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에 대한 영화이다. 어떤 입장에 놓인 관객이라 할지라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
영화 '말아톤'을 보면 마라토너의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껏 마라톤의 목표는 42.195킬로미터를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말아톤에서 보면 제각기 마라토너의 목표는 여러 가지였다. 주인공 초원이의 목표는 '서브쓰리'라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42.195킬로미터를 3시간 안에 주파하는 것을 서브쓰리라고 한다. 이외에도 10킬로미터 완주, 21.0975킬로미터 하프마라톤 등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코스의 마라톤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항상 완주하면 42.195킬로미터의 속도전만을 생각했을까? 10킬로미터를 성공하고 그 다음엔 하프, 그 다음엔 서브쓰리를 목표로 세우는 초원이처럼 우리는 팀원에게 직원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의욕을 불어넣었는지 자문해보는 대목이었다.

마라톤은 혼자가 아니라 그룹을 이루며 달리는 것
말아톤이 준 가장 큰 깨우침은 역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란 얘기는 흔한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확인한 마라톤은 흔히 혼자 뛰고 지루한 자기와의 싸움만은 아니었다. 혼자 고독한 달리기가 아니라 서로가 그룹을 이루고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서 도반의 존재감과 숨소리를 느끼면서 뛰는 게임이었다. 우리는 누구에게 엄청난 심판이 되려고만 했지,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려 했었던가.

인생은 마라톤이지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목표를 향해 뛰는, 때론 주저앉은 이에게 초코파이를 건네기도 하면서 함께 기운을 낼 때 완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마라톤이다.

당신이 CEO라면 물겠다. 42.195킬로미터를 혼자 뛸 때 외롭지 않던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던가. 원래 CEO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 외롭지도 않고 기운도 날 것이다. 벤치는 정말 마라톤이다. 한계를 오가는 순간도 있고 가슴이 터질듯한 데드 포인트도 만난다. 또한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음을 기억하자. 나의 소중한 동료일 수도 있고, 사업파트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 벤처인의 길, 홀로 갈 수도 있으나 혼자서 가면 그만큼 더디고 힘들게 가는 길이다. 벤처인의 길은 예전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김정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소리를 들으며 격려하며 기운을 내서 가야하는 마라톤의 길일 것이다. 그 지난한 완주 끝에 '백만불짜리' 벤처기업인의 기쁨이 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동안엔 목도 마르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도 들었지만 꿈에 그리던 완주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콩닥콩닥 가슴이 행복하게 뛰어요".